

Global Strategist 김윤보 · 02)6923-7331 · younbokim@capefn.com

CAPE Global Issue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여부가 중요

- 북한의 미국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 이후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한 우려 부각
-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여부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 선회 여부의 Key Factor
- 낙관론이 확대된 글로벌 증시, 북미 관계 악화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북한의 미국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한 우려 확대

- 12/3일(화) 북한 외무성 측은 담화문을 통해 현재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힘. **미국에 대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
→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실험 재개, 2) 새로운 대미 강경 정책 수행(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핵보유 지위국 공식 재천명 등) 등이 언론을 통해 주로 거론 중
- 북한은 7일(토)과 13일(금)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로켓 엔진 개발과 관련한 중대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 1/2단계 추진체 시험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주요 실험들이 시행되었다고 밝힘
- 주요 언론은 북한이 최근 ICBM 시험 발사를 위한 발사대 등 주요 시설물 이동을 시작했으며, 미국은 주한 및 주일 미군 내 가용 정찰기들을 모두 동원하여 북한의 지상 및 해상 시설에 대한 정밀 감시에 돌입했다고 보도
- 2019년 5월을 기점으로 북한은 현재까지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시행했으나, 사거리 1,000km 내 단거리 발사체에 한정. 미국 주요 인사들 또한 그동안 북한의 실험이 중장거리 발사체 분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 최근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ICBM 등 중장거리 발사체 발사 재개 가능성 부각, 북미간 갈등 재확산 및 한반도 정세 불안 재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
→ 24일(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긍정적인일 수 있으나, 향후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발언. 북한의 강경 도발 재개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표 1. 2019년 북한의 발사체 발사 및 시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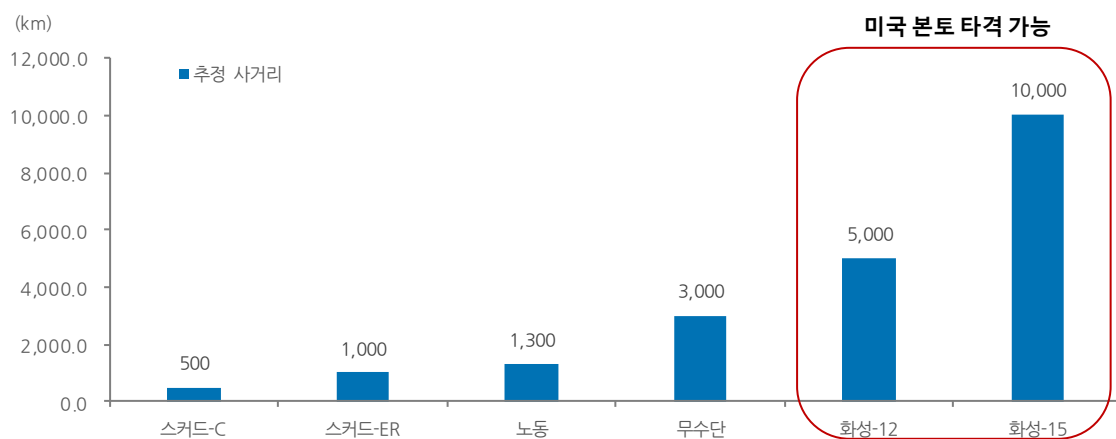
일자	추정 발사체	미사일 수	추정 사거리	장소	비고
2019.05.04	KN-23	2발	240km	원산 호도반도	
2019.05.09	KN-23	2발	270~420km	평안북도 구성	
2019.07.25	KN-23	2발	600km	원산 호도반도	
2019.07.31	KN-23(신형방사포)	2발	250km	원산 갈마지역	
2019.08.02	KN-23(신형방사포)	2발	220km	영흥 지역	
2019.08.06	KN-23	2발	450km	과일군 일대	
2019.08.10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400km	함흥 일대	
2019.08.16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230km	통천 북방 일대	
2019.08.24	초대형 방사포	2발	380km	선덕 일대	
2019.09.10	초대형 방사포	3발	330km	평안 개천 일대	
2019.10.02	잠수함 탄도미사일	2발	450km	동해상	
2019.10.31	초대형 방사포	2발	360km	평안남도 일대	
2019.11.23	해안포	다수	-	서해 창린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2019.11.28	초대형 방사포	2발	380km	함경남도 연포	
2019.12.07	탄도미사일 로켓 엔진(1단)	-	-	동창리 위성발사장	중장거리 발사체 관련 실험 진행
2019.12.13	탄도미사일 로켓 엔진(2단)	-	-	동창리 위성발사장	중장거리 발사체 관련 실험 진행

자료: 언론취합,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여부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 선회 여부의 Key Factor

- 북한은 2016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대부분의 미사일 발사가 공중 폭발 등으로 실패→2017년 7월 ‘화성-14형’ 발사에 성공,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미국 본토 사정권에 진입
- ‘화성-14형’ 발사 성공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대했으며 북한 본토 타격 가능성을 언급. 북한은 ICBM 발사 시험을 지속하는 가운데, 수소탄 미사일 탑재 시도 등을 통해 미국에 대응함
- 2018년 북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완화된 기조로 선회. 북한은 ICBM 추가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억류 미국인 석방 등으로 대응.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지속했으나, 대북 군사훈련 축소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축소 →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미 양국간 비핵화 협상이 본격 재개
- 2019년 5월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10차례 이상 진행했으나, 미국은 발사가 단거리 발사체에 한정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을 옹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간 중에도 6월 판문점 회동 등 북미간 대화는 지속됨
- 그러나 12/9일(월) 서해 동창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ICBM 실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표명.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적대적인 행위를 재개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밝힘
→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여부가 미국 입장에 있어 대북 강경책 선회의 바로미터로 작용함을 의미

그림 1. 북한 보유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 비교



자료: 언론 보도내용 종합,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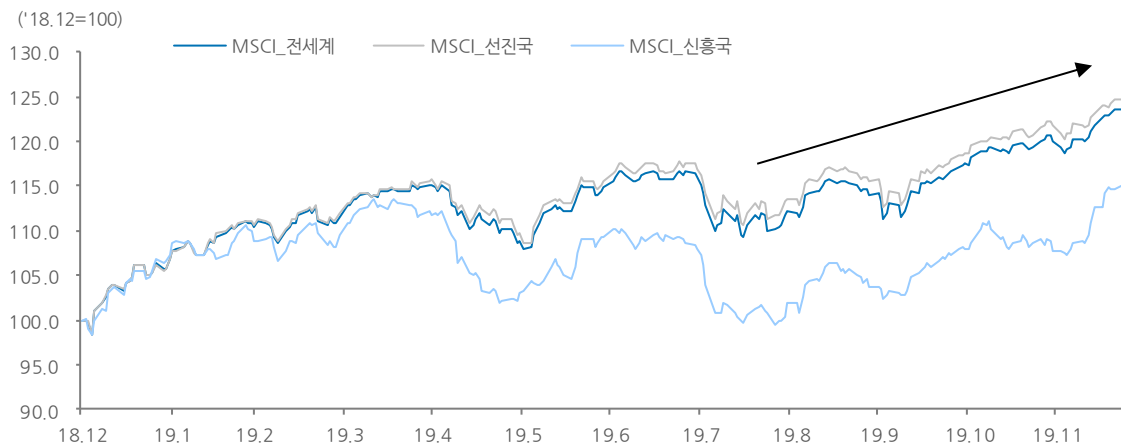
표 2. 2017년~2019년 북미 양국간 관계 변화

일자	비고	북한 대응	미국 대응
2017년	양국간 강대강 구조 확대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 위협 확대] 1.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확대 : 화성 12호/14호/15호 발사 2. ICBM 장착용 수소탄 장착 실험 진행 3.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 확대 : 트럼프 대통령을 미치광이에 비유한 성명 발표	[북한에 대한 제재 및 군사 옵션 확대] 1.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확대 2.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확대 : 화염과 분노 발언, 북한 직접 타격 가능성 거론 : 전략폭격기 비무장지대 선회비행
2018년	양국간 화해무드 조성	1. 북미 정상회의 개최 2. 미사일 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 ICBM 등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3.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1. 북미 정상회의 개최 2. 대북 경제/군사압박 완화 : 유엔 안보리, 남북 공동철도조사 제재 면제 인정 :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단
2019년	대북제재/미사일 발사 지속 속 양국간 협상 지속	1.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재개 : '19년 5월 이후 10차례 이상 발사 2. 북미 판문점 회동 진행 3. ICBM 발사체 실험 재개	1.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대북 제재 지속 2. 북미 판문점 회동 진행 3.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 옹호 :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행위가 자신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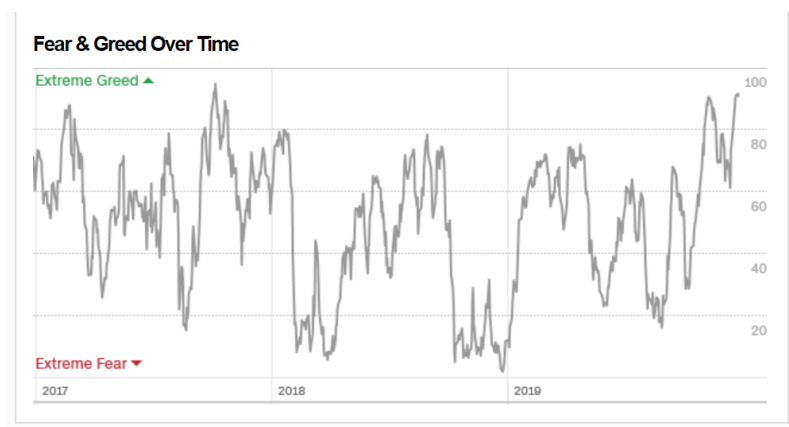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내용 종합,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낙관론이 확대된 글로벌 증시, 북미 관계 악화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타결, 브렉시트 불확실성 완화(영국 보수당의 하원 과반 확보), 연준(Fed)의 금리 동결 기조 유지 등 최근 글로벌 증시는 기존 불확실성 요인들이 대부분 해소되며 상승 랠리를 지속
- 미국 증시의 과열 여부를 측정한 Fear&Greed Index는 최근 91Pt를 기록, 연중 최고치를 경신. 주요국 증시 밸류에이션 또한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
→ 미국(15.4→18.2배), 독일(11.1→13.8배), 영국(11.2→12.5배), 일본(11.7→14.3배), 중국(10.3→11.5배), 브라질(10.8→12.7배) 등 선진국 및 신흥국 주요국 증시(MSCI기준)의 12개월 선행 PER이 전년말 대비 대부분 상승
- 남은 연말 기간 중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내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가 예정.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 리스크는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등 북한이 미국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는 행보를 재개한다면, 최근 과열 우려가 일부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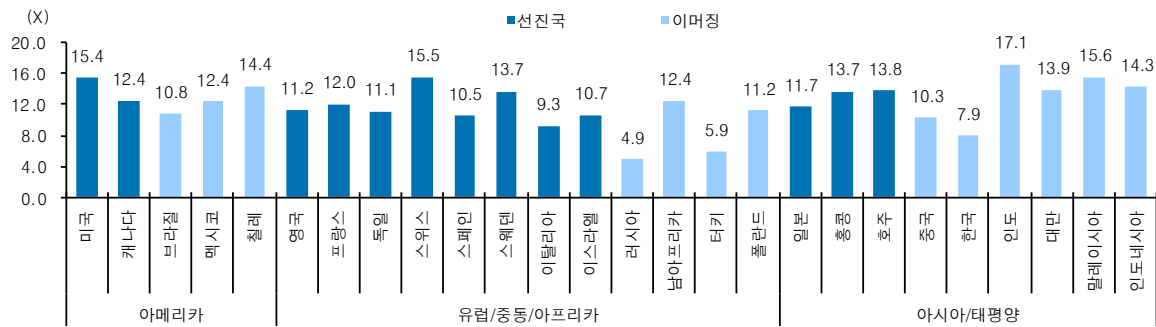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증시 추이(글로벌, 선진국, 신흥국)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3. 미국 증시 Fear&Greed Ind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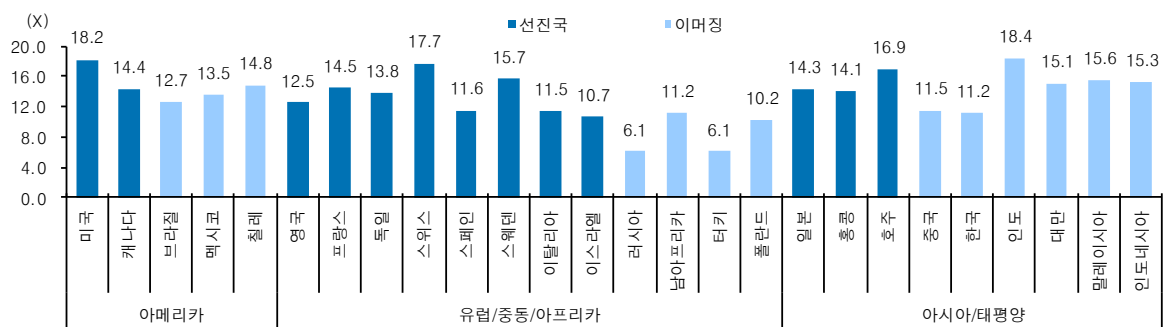
자료: CNN,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4. 주요국 증시 밸류에이션 현황(2018년 12월 말)



자료: Refinitive,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5. 주요국 증시 밸류에이션 현황(2019년 12월 현재)



자료: Refinitive,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